

〈문제제기〉

## 민족이산 : 현실과 과제

김 경 동

(서울대 사회학)

### 1. 그 충격의 뜻

지난 여름 어느날 밤, 우리 민족은 오랜 숙면(熟眠)에서 갑자기 깨어나 그새 계속 앓아 오면서도 거의 잊어 버리고 있었던 몸쓸 병에 대한 자각증상(自覺症狀)을 새삼 느끼게 된 실로 충격적인 「사건(事件)」에 접한 일이 있다. 정확하게 말해서 1983년 6월 30일 밤 열시가 지난 시각 이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습관적으로 화면에 눈을 던지고 있었던 남녀노소 온 겨레가 삼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바다로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그야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 민족의 한(恨)이 겹겹이 서려 있으면서도 이제는 차츰차츰 우리의 기억속에서 흐려져만 가는 6·25 전쟁 발발(勃發) 33주년과 쓰라린 휴전협정 체결 30주년을 맞아, 한국방송공사(KBS)가 마련한 TV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예정했던 2시간을 훨씬 지나 다음날부터는 철야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눈덩이 굴리듯 확대해 갔다. 이날부터 11월 14일 방송순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날까지 무려 15만에 육박하는 이들이 흠어진 식구들을 찾고자 신청해 왔으며, 그 중 1만명이 넘는 가족이 상봉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 지금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흠어진 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계속 이 일은 추진되고 있다. 기다리는 이들, 만나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실망의 얼굴들, 서로 만난 이들의 통곡과 오열과 기쁨과 억울함과 온갖 정감이 눈물로 뒤범벅이 된 장면들을 보면

시 우리민족은 하나같이 눈물을 삼키지 않은 이 없었으며, 온 세계도 이러한 비극에 동정을 금치 못했다. 실로 이 사건은 한국의 사회문화사뿐 아니라 세계의 방송사(放送史)에 길이 남을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이산가족을 찾고자 하는 운동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언론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추진해 온 바이므로, 이들의 공적과 노고 또한 치하해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KBS의 텔리톤(Telethon)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족이산」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비극의 뼈저린 상처를 되새기게 되었다. 흥분과 감동과 아픔의 소용돌이도 이제 서서히 우리의 일상 속으로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족이산과 이산가족 되찾기의 의미를 차분한 마음으로 이성적(理性的)인 성찰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해야겠다는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그와 같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겨레의 한이 응어리진 이산과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への 염원을 이룩하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으며,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에 관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학계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민족이산: 현실과 과제」를 토론하고자 하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기가, 주제 자체는 반드시 사회과학적으로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좀더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번의 모임에서는 주로 민족이산과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가려냄으로써,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돕고자 하는 기초작업을 시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그 까닭은, 지난 여름의 그 충격 이래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어도, 아직껏 누구 하나 이를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한 보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기에 이 모임을 주선하게 된 것이다.

## 2. 사회과학적 접근의 기본 틀

이산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의미있게 다루자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 개념화 작업과 변수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로, 이산의 단위를 확실히 해야 비로소 이산이라는 현상의 뜻이 분명해지고 분석의 단위도 명백하게 된다. 둘째, 이산의 유형을 분류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없다. 셋째, 유형화에서도 일부 언급하게 되지만, 이산의 원인 또는 이산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관적합성이 높은 주요한 요인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는, 역시 약간의 중복이 있지만, 이산의 과정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이산의 결과로 개인, 집단 및 사회전반에 끼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여섯째, 이산가족의 재회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호 적응의 문제를 개인, 가족과 친족, 사회 전반의 수준에 걸쳐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민족이산의 문제를 분단과 통일이라는 민족 특유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있었던 방송캠페인의 사회과학적인 의의를, 그 운동의 효과와 그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본 방송매체의 공공적 기능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는 일도 유용한 작업이라 하겠다.

### 가) 분석의 단위

우리가 여기에서 「민족이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다른 개념에서 혹시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유형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공동체 단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세삼스레 정당화가 필요 없다고 전제할 때, 민족이 갈라져 흩어지는 모습은 사회과학적으로 의미있는 몇 개의 집합체 수준을 단위로 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의 기준은 공유하는 문화전통과 정치경제적 연대성, 지연(地緣) 및 혈연의 유대로서, 민족전체, 지역공동체, 그리고 친족과 가족이라는 단위를 이룬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인간의 사회 생활에서 조직된 삶을 누리는 집합체의 단위는 굳이 분류하자면 위의 종류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는 그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적인 특성에서 공통하고, 지역공동체를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종의 운명공동체라고 할까, 개인의 선택의지가 작용할 여지가 제한된 그런 조직단위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들 단위의 성원들에게 일어나는 이산은 고통을 수반한다. 근자에 오면서 지역적 이동이 심해지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일체감 또는 정체의식이 희박해짐으로써, 이산의 문제는 주로 민족전체와 친족집단으로 축소되는 게 사실이다. 이 둘에 대한 정체감에도 변화는 일고 있지만 아직은 이산의 분석단위로서 중요성을 인정할 만하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이산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민족정체의 중요성에서도 특이할 뿐더러, 특히 친족과 확대가족의 이념적 무게는 더더욱 크다는 특징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주의」(familism), 「우리주의」 등으로 불리우는 친족과 혈연 중심의 집합주의 성향이 우리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난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는 있다지만, 문중과 동족부락, 동향인 등에 대한 동일시는 아직도 면면히 남아 있음을 이번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산의 단위를 민족과 친족에다 한정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비록 같은 마을 출신이라 해도 이산을 경험한 이들이 서로를 다시 찾는 것은 한 동네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친족이기 때문이다.

#### 나) 이산의 유형

위의 두 가지 단위에서 성원들 사이에 흠어짐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어떤 특별한 유형의 이산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만일 민족전체인건 친족이나 가족이건 간에 그 성원들의 이산이 그들 스스로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자율적인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비록 개인이나 집단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 해도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거리는 되지 못한다. 예컨대, 오늘날 비교적 성행하게 된, 공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을 타는 이농(離農), 직업이동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따른 외국이민 같은 움직임은 언제나 민족 또는 친족의 이산을 내포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산은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대국적

인 요인에 의해서, 민족전체나 친족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할 것이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강제성이 깃든 이산인 것이다. 그러한 강제성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 때문에, 이런 유형의 이산은 근원적으로 비극의 씨를 잉태하고 있으며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그것이 끈적끈적한 게마인샤프트적인 연대로 얽혀 있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런 강제적 이산이라도 역사상 상당히 오래전의 시기에서부터 일어났을 터이므로, 우리의 당장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시기를 한정시킬 필요가 생긴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산현상은 그것이 민족이나 친족의 단위여하를 불문하고, 그 뿌리가 대체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거슬러 뻗어 있다고 보는 게 온당하리라 여겨진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가 국제적인 근대화의 물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역사적인 뜻이 있고, 그 뒤의 민족이산이 곧 그 물결과 직결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의에 의한 강제적 이산을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는 이산의 모습 자체를 유형화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 단위 집합체가 몇 갈래로 갈라지는가, 양분(兩分)인가 더 많은 가지로의 이산인가 하는 단순한 양적 분류가 가능하다. 가령, 삼국분열과 남북분단이 가지는 사회과학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연합이론(coalition theory)에서는 둘(duo)이나 셋(trio)이냐가 그 관계구조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이산과 분열이 어떤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가를 따져 보는 게 유용하다. 예컨대, 부부가 갈라진 경우와, 부모자녀가 이산한 때와, 형제자매, 기타 친족들 사이에 흩어진 사례 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뜻을 지닐 것이다. 세째로,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병합해서 다시 고려하면, 집합체가 갈라질 때 갈라진 부분들이 단일체인가 복수인가 하는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둘씩 둘씩 짝이 되어 갈렸다면, 혼자 남고 다른 성원들은 복수로 흩어졌다면가 하는 식의 구분이다. 이 또한 이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자아낼 수 있다.

#### 다) 이산의 요인

인과분석이란 과학의 주요 과제이면서도,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극히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좋다. 그러나, 적어도 논리적으로 몇 가지 인과분석적이라 할 것은 다루어 볼적하다.

이산이 왜 일어났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분석단위와 유형을 참작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전제를 하면, 우리는 강제성이 갖든 민족(천족)이산의 원인적 요소들을 일반적인 모형에서 우선 확인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모형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립한다. 이산현상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이면서 국제, 국내의 공간적 맥락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특정 이산의 먼 원인에서부터 더 가까운, 즉각적인 원인들로 좁혀 고찰할 수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넓은 맥락에서부터 더 좁고 직접적인 맥락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요인들을 다룰 수는 없다. 그 중 어떤 것들이 더 유관적합하고 유의미한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역사적 요인이라 할 때, 민족의 삶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역사적 경험, 사건, 긴장, 위기 같은 것들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 및 국내적 구조적 맥락요인도 이산현상과의 상대적 친화력(親和力) 내지는 유관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강제성과 개인이나 가족의 자체 조절 가능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이산의 원인적 요소들을 탐색할 터이므로 이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보기들을 들어 보자. 앞에서 지적한 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우리민족은 근대화라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국제적 문화접변(文化接變, acculturation)으로 표상할 수 있는 충격적인 변동과정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당시의 근대자본주의 세계체계는 국가간 계층현상을 내포하고, 기술, 경제, 군사적으로 우세한 구미선진제국들이 중심국으로서 주변국들과의 패권적 관계를 이룩해 가던 과정에 있었다. 이때 한반도는 이런 핵심국들과 반핵심국들(일본,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었고 마침

내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주의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민족이산의 역사적으로 밀고 공간적으로 넓은 요인들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사정, 특히 농업부문이 꺾박해지고 민족의 정체를 지탱하던 국가가 소멸됨으로써 많은 인구가 남부여대 이산의 쓰라림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 특기할 사례들은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적 이산 같은 것일게다. 이어 태평양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징용, 징병, 강제노동, 정신대 동원 등 강제된 이산이 확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내부에서 이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산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찾아 보게 된다. 한말(韓末)의 사회구조 특히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외부의 침투를 스스로 막을 만한 통합된 힘을 지닐 수 없게 만들었고, 지배층이 내린 정치적 선택은 민족이산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다. 일제하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더욱 격화되었을 뿐더러 식민당국의 정치적 선택은 직접적으로 이산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찾아 온 분단은 단순한 국토의 양분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의 민족분열, 이산의 유형이었고, 그 결정은 전승 강대국들의 정치적 선택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우리민족은 그 지도층에 있어서 통합의 길을 찾지 못함으로써 분단을 현실화시켜 버리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왔다. 분단 결과 민족이산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6·25는 결정적으로 역사적인 이산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이 전쟁의 충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구하게 해설하지 않을 것이나, 그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 라) 이산의 과정

이산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루자면, 그 단위, 유형,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모형의 테두리에서 몇 가지 형태와 단계를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살펴 본 원인적 조건들이 생겨났다는 전제 위에, 우리는 이산의 즉각적인 동기(動機)부터 고려할 수 있다. 신변에 대한 위협 또는 그 위협의 존재여부, 시급한 필요에 의한 이산(예: 식량구득) 등과 같은 동기들이다. 다음, 이산이 일어날 때 의도적 요인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가령, 어떤 필요, 동기에

의해 의식적으로 흠어지는 경우와 전혀 의도한 바 없는 행위 또는 여건에 의해 이산하는 사례 같은 것들이 분류 가능하다. 또한 이산이 일어나고부터 재회 가능성이 증대 또는 감소하는 모습으로 이산이 당분간 진행될 것이므로 이 점도 과정의 한 끝부분으로 다룰 만하다.

사실 이산과정은 그 실제적 양상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일반화는 그리 쉽지 않은 측면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분석보다는 실증적 조사연구의 절차가 더 중요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에는 문학작품의 도움도 필요하다.

#### 마) 이산의 결과

이산의 결과는 다시 개인, 집단, 민족전체의 몇 가지 수준에서 분석하는 게 유용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신체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구조적 효과, 영향, 흔적, 충격 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효과의 방향도, 해당분석 단위의 복지를 기준으로 고통과 비참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쪽과 행복과 기쁨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면으로 설정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우리가 이산을 심각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가 주는 충격의 정도 내지 강도(強度, intensity)를 따지고 측정해 볼 수 있다. 가벼운 충격에서 죽음에 이르는 연속선 상에서 이를 점찍어 보고 쥘 것이다. 한편, 이산의 결과 서로 떨어진 거리를 고려할 만한데, 이때의 거리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거리까지 내포한다. 우리민족의 경우 남북분단은 지리적 거리에 문제가 있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거리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산 이후 그 거리들이 점차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는 반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산의 결과 재결합의 개연성이 더 커지게끔 상황이 진전되는가의 여부도 다시금 따져 볼 것이다.

이산의 결과도 실제로는 매우 다양할 터이고, 그에 대한 일반화는 실증적인 분석에 바탕할 때 더욱 체계있고 의미있게 될 수 있다. 단적으로, 민족이산은 우리 겨레 모두에게 친추의 한을 심어 주는 실로 충격적이고 통분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산문제의 해결, 민족의 재통합, 이산친족의 재결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강렬한 동지지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바) 재회와 적응

알게 모르게 그 사이 상당수의 흩어진 친족들이 서로 연줄을 타고 재회하고 재결합해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여름 KBS의 생방송을 통한 친족재회는 극적으로 다수가 경험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어떤 재회와 재결합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극적이고 기대하지 않던 상봉과 재결합에는 적응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회, 재회는 했으며 갖가지 사회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재결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들, 재결합은 했으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 등에서 부적응의 현상과 조정의 필요가 상당히 나타나는 사례들도 많을 것이다. 심지어 방송으로 친족임을 확인하고도 서로 찾지 않거나, 찾고도 상봉을 피하거나, 재회하고도 재결합을 원치 않는 보기들을 우리는 보아 왔다. 그리고 재결합한 경우의 후속조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후유증상들을 드러낼 것이다.

민족전체의 수준에서 분단 이후의 장기적 이질화가 통일후의 제적응과 동질화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니와, 그 문제가 과연 우려할 정도인지의 여부는 제쳐 놓더라도 적응의 문제가 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 해도 민족의 재통합과 흩어진 동족의 귀환에 의한 재결합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데 우리의 비극적 역사가 반영되고 있다.

### 3. 앞으로의 과제

민족이산의 역사적 전개와 실재를 사회과학적으로 체계있게 분석, 검토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학문적인 중요성을 지님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산의 쓰라림을 그처럼 되새기고 따져 보아야만 하는 현실은 바로 그 작업의 학문적 성격을 넘어서는 긴박한 실천의 필요성을 함축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거레가 다시금 하나가 되는 앞날을 설계하고 이룩하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당위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과업은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것

임을 우리는 잘 안다. 이때의 정치적 결정은 동시에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그런 만큼 사회과학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실현될 길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밝힐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길 가운데 한 가지가 온 국민의 정성어린 입을 모아 민족재결합의 염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일일 것이다. 물론, 이는 국민적 힘의 결속을 통한 정치적 압력과 참여의 한 모습일 따름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방법은 필요하다. 그 일을 방송매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지난번 KBS의 생방송은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바 있거니와, 그와 같은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위력은 반드시 우리가 염원하는 민족재결합의 추진에도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친족제회, 재결합의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제약 속에서 운용하지만, 언젠가 장래에는 민족재통합에의 길을 트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야 마땅하다.

분단과 그것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냉기가 풀려 해빙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원하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가려내는 작업의 작은 몫이나마 감당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의 이 모임을 마련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